

폐암 환자의 절망감*

손 수 경**

암이라는 질환은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중 폐암은 조기발견이 드물고 쉽게 전이되는 경향으로 인해 생존율이 매우 저조하다. 이로써 폐암환자는 더욱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며 생체체계의 통합성에 심한 도전을 받게 된다.

폐암환자들의 현존하는 위협의 정도와 신체적 고통이 크고, 또한 암치료가 복잡하고 치료 과정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에 부딪히게 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면서 절망감을 경험하게 된다. 절망감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환자가 설정한 중요한 목표달성이 계속적으로 차단되므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로, 관련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므로 폐암환자의 간호를 위해서는 그들의 절망감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구자는 폐암환자들을 10년간 임상실습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공포와 좌절, 초조,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대상자들을 이해하는 것은 피상적이었고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 또한 부족한 실정이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인간에 대한 진정된 관심과 이해 없이는 질적인 간호 혹은 전인적인 간호의 성취가 어려우므로 암환자들이 가지게 되는 절망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대치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이고 살아있는 경험의 근원적 규명 및 체계적인 구성을 서술하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폐암환자가 경험하는 절망감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간호방안의 모색은 물론, 간호이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 ○○의료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하는 폐암환자 중 본인이 질병명을 분명히 알고 투병중인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사고나 판단의 흐름이 명료하고 일관성이 있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허락한 사람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수는 현상에 관한 경험의 기술이 반복되는 시점인 7명으로 하였으며, 거주지는 부산과 경남이었고, 그 중 6명이 전이된 상태이나, 3명만이 자신이 전이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5년 1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법으로 대화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양해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1인당 방문횟수는 평균 8회였고, 총 방문횟수는 61회였다. 1회 면담 및 관찰은 1시간에서 4시간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 1시간 30분이었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한명의 대상자와 일회 면담하여 녹음한 내용을 반복 확인하여 정리하는데 4~8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분석은 Giorgi가 제안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절망경험의 기술단위들로부터 주제

*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간호학 박사

(themes)와 중심의미(focal meaning)을 찾아내었고, 이것에서 각 연구참여자의 상황적 구조적 기술(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을 확인 하였고, 그리고 참여자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반적 구조적 기술(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을 확인하여 결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절망감의 유발요인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 하였는데, 내적요인은 질병자체와 그에 대처하는 환자의 능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암진단), (지식부족), (치료방법의 불신), (치료과정의 고통), (불확실한 미래), (신체상의 변화), (외로움), (죽음의 공포) 등 8가지로 나타났고, 외적요인은 주변환경과 타인이 위협하게 되는 것을 외적요인으로 보았을 때 외적요인으로 (의료진의 무관심), (대인관계 변화), (역할상실), (동류집단), (가족지지 결여), (경제적 부담) 등 6가지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내적, 외적 유발요인들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상호작용하여 절망감을 상승시키거나 또는 촉진하게 되는데, 그 중 암진단은 참여자로 하여금 절망감을 가지게 하는 첫 시작의 단계이다. 이 시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인지하게 되면서 분노와 부정 및 타협과정을 거쳐 점차 받아들이나, 삶의 비애를 느끼고 살아온 삶을 후회하게 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처음의 충격과 혼돈 속에서 곧 치료의 권유를 받게 되면서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듯 하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상기의 여러가지 유발요인에 의해 다시 절망감을 경험하게 된다. 모든 참여자에게 표현되는 내적요인으로는 죽음의 공포였는데, 상기의 요인들 중에 암진단, 치료방법의 불신, 치료과정의 고통, 불확실한 미래, 동류집단과의 비교시에 구체적인 죽음의 공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형성된 절망감은 통상, '이제는 끝이다' '기가 막힌다' '까맣다' '참담하다' '바라볼 것이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의 언어적 표현과 눈물·표정의 변화·웃음·한숨·목소리의 변화·침묵·꿈·식욕부진·불면 등의 행위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성은 언어적 표현이 섬세하고 구체적이며, 행위적 표현은 주로 울먹이거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언어적 표현이 여성보다 섬세하지 못하였고, 행위적 표현으로 침묵이나 표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절망감을 느끼기 쉬운 시간은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과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였으며, 혼자있는 시간에 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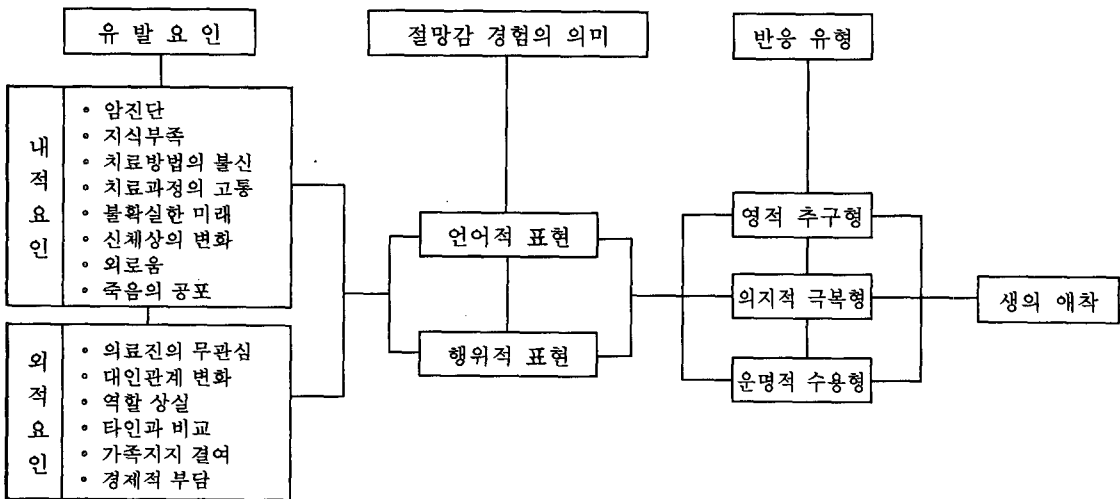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참여자의 절망감 경험의 일반적 구조

이러한 과정 동안에 개인의 삶의 경험과 세계관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현세적 삶의 관점을 가진 경우 의지적 극복형, 운명적 수용형으로 그들은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질병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에게 좋다고 하는 것을 찾아서 적용하면서 질병과 싸우게 되고, 내세적 삶의 관점을 가지는 경우 영적 추구형으로 자신의 노력과 선한 삶을 통하여 현세와 내세의 평안을 추구하거나 또는 전능한 신에게 자신을 맡기고 신의 도움으로 생명의 연장을 기대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질병의 위기가 개인의 영적 신념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도 확인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절망과 희망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여 일어났고, 절망과 희망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쉽게 흔들리는 취약성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계속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강한 애착과 삶의 의지를 그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절망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확인하여 예방하고 각자의 반응유형과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간호접근을 통하여 폐암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보다 양질의 삶을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며, 특히 따뜻하고 친절함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상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해 줌으로써 심리·정서적인 환기작용이 가능하며 절망감이 해소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이론적 측면 : 폐암환자의 절망에 대한 경험을 특성이 다른 개인별 관점에서 기술, 확인 함으로써 암환자의 절망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암환자의 절망에 대한 간호이론 구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연구 측면 : 간호가 대상자에게 만족을 주는 질적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의식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래의 기존 이론에 입각한 간호는 대상자의 개성적 특성을 간과하고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식 보편성에 치중한 바 진정한 의미에서 대상자 중심의 간호연구가 부족하였으며, 결과의 활용도가 낮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심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통한 내용을 수집, 분류,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 및 가치체계를 파악하는 대상자 관점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한국적 상황에서 폐암환자의 절망감에 대한 경험의미를 확인 조사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적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간호교육 측면 : 지금까지 암환자의 간호에 대한 교육내용이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것에 치우쳤으며,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은 해왔으나 주로 외국의 것을 인용해 왔고 우리나라 암환자의 것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인 간호교육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으며, 비중이 큰 암환자의 정서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임상간호교육 및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본 연구의 결과가 간호교육의 내용으로 제공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간호실무 측면 : 본 연구는 간호현장에 있는 폐암환자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부터 얻어진 자료이므로 임상현장에서 절망감을 가진 환자들을 사정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주고, 절망감의 완화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간호계획에 지침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간호를 확인하고 새로운 간호방법의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론과 실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폐암환자의 간호에 있어서 신체적 문제 뿐 아니라 심리적 영적인 문제를 포함

시키지 않을 때 전인적인 환자간호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각 폐암환자의 개인적 특성을 간호에서 고려하고 반영함으로써 총체적인 인간 이해와 더불어 질적인 간호제공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 한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 사료된다.

이상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암환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적 연구가 계속 다양하게 수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한국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속에서 암환자의 절망감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화기술지의 연구가 요구된다.

2) 폐암환자들은 자신의 동류집단을 통해 정보를 얻고, 긍정적 방향의 힘을 얻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상호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